

# 이번의 코트, 순위싸움 안갯속

## NH농협 2010-2011 V리그

훈련 양상이 계속되는 프로배구 남자부에 안갯속 순위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3라운드가 시작된 NH농협 2010-2011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는 3경이 다소 주춤한 반면 중하위권 팀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번 주에도 접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주 남자부는 이번이 속출하면서 코트를 뜨겁게 달궜다. '동네북'으로 전락한 삼성화재가 15일 3경 가운데 한 팀인 라이벌 현대캐피탈을 3-0으로 완파했고, 고공비행하던 대한항공은 하위권인 상무신협과 우리캐피탈에 연속으로 덜미를 잡하면서 충격의 2연패를 당했다.

대한항공이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현대캐피탈은 LIG순위보복과 2위 싸움중이다. 우리캐피탈과 5위 상무신협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전력이 상승곡선을 그고 있어 어느 팀도 순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앞서가던 대한항공은 3라운드 들어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 선두 대한항공 하위팀에 2연패

### '동네북' 삼성, 현대엔 절대 못져

### '토종의 힘' 우리·상무 승승장구

#### 여자부선 현대건설 독주

을 벌이는 LIG순보와 23일 맞붙는다.

김요한, 이경수 등 주축 선수의 부상으로 공격의 한 축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LIG순보도 전력을 정비해 3강 수성에 나선다.

지난주 현대캐피탈을 잡으면서 4연패에서 탈출한 웹포 삼성화재는 탈꼴찌를 넘어 중위권 도약에 도전한다.

여자부에서는 현대건설의 독주가 관심사다.

현대건설은 17일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거침없이 7연승을 달려 여자팀 가운데 가장 먼저 10승 고지를 밟았다.

현대건설이 상승세를 이어 간다면 일찌감치 선두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도로공사, 22일 GS칼텍스와 상대한다.

공격 종합 2위 케니와 블로킹 1위 양효진이 이끄는 현대건설은 갈수록 살아나는 조직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건설은 윤혜숙이 리시브 1위, 세터 염혜선이 세트 1위를 달리는 등 공격과 수비가 촘촘하다. 반면 용병 제시카가 부진하면서 6연패의 수렁에 빠진 꿀찌 GS칼텍스의 회복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연합뉴스

## '거포' 문성민 V리그 상 못받는다

남자프로배구 '새내기 거포' 문성민(24·현대캐피탈)이 2010-2011 시즌 각종 시상 후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신인 드래프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번 시즌 1라운드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던 문성민의 시상 자격을 심사한 결과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 중 V리그와 관련한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연맹은 상별 규정 9조에 명시된 '출

장정지 3경기 이상 시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문성민은 시즌 종료 후 기자단 등 투표로 뽑은 정규리그 MVP와 신인왕, 챔프전 MVP, 득점상을 포함한 6개 기록상 후보 대상에서 빠졌다.

문성민은 지난 2008년 한국전력(현재 KEPCO45)의 신인 지명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독일 프로팀에 입단했다가 지난

## 드래프트 거부 징계 사유

### 신인상·MVP 후보 제외

해 6월 국내 무대로 돌아와 현대캐피탈에 입단했다.

이 때문에 문성민은 배구연맹으로부터 1억1000만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가 재심 청구 '1라운드 출장정지' 징계로 바뀌어 1라운드 7경기에 뛰지 못했다.

문성민은 그러나 2월 6일 열릴 올스타전의 MVP와 5세트 승리팀 수훈 선수에게 주는 하이파이브상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월슨 36홀 마라톤 레이스서 우승

### 소니오픈 앤서니 김 13위

마크 월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번째 대회 소니오픈에서 36홀 레이스의 승자가 됐다. 월슨은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골프장(파70·7068야드)에서 열린 대회 3,4라운드에서 각각 5타와 3타를 줄여 함께 16언더파 264타를 적어내며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첫날 폭우로 인해 1라운드가 순연되면서 마지막날 3,4라운드를 잇따라 치르는 강행군이 펼쳐

졌다.

사흘내내 언더파 스코어를 치는 안정된 경기를 펼친 월슨은 2007년 혼다 클래식과 2009년 마야코바 클래식 우승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최경주(41·SK텔레콤)와 김비오(21·넥슨), 강성훈(24)이 컷 탈락한 가운데 재미교포 앤서니 김(26)이 공동 13위(9언더파 271타),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이 공동 20위(8언더파 272타),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가 공동 46위(3언더파 277타)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4월 발렌타인챔피언십 출전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리 웨스트우드(38·잉글랜드)가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한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유럽-한국프로골프투어 제4회 발렌타인 챔피언십 대회조직위원회는 17일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 웨스트우드와 아니 엘스(42·남아공), 이안 폴터(35·잉글랜드), 양용은(39) 등이 4월 28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이천의 블랙스톤 이천 골프장에서 열리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한다고 발표했다.

전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웨스트우드의 방한이다. 현역 세계랭킹 1위가 한국 경기에서 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4년 11월 '골프황제' 태이거 우즈(38·미국)가 제주에서 열린 MBC-라온인비테이셔널 스키스 대회에 출전하느라 한국을 찾은 적이 있지만 그때는 우즈가 비제이 싱(파지)에 밀려 잠시 세계 2위로 내려 앉았던 시절이었다.

왕년의 세계 1위 '황태자' 아닌 엘스 3년 연속 한국을 찾는다.

/연합뉴스

## 골프 세계1위 웨스트우드 한국 온다

### 4월 발렌타인챔피언십 출전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리 웨스트우드(38·잉글랜드)가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한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유럽-한국프로골프투어 제4회 발렌타인 챔피언십 대회조직위원회는 17일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 웨스트우드와 아니 엘스(42·남아공), 이안 폴터(35·잉글랜드), 양용은(39) 등이 4월 28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이천의 블랙스톤 이천 골프장에서 열리는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한다고 발표했다.

전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웨스트우드의 방한이다. 현역 세계랭킹 1위가 한국 경기에서 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4년 11월 '골프황제' 태이거 우즈(38·미국)가 제주에서 열린 MBC-라온인비테이셔널 스키스 대회에 출전하느라 한국을 찾은 적이 있지만 그때는 우즈가 비제이 싱(파지)에 밀려 잠시 세계 2위로 내려 앉았던 시절이었다.

왕년의 세계 1위 '황태자' 아닌 엘스 3년 연속 한국을 찾는다.

## 리턴샷 날리는 워즈니아키

덴마크의 캐럴린 워즈니아키가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토너먼트에서 기저귀 둘코(아르헨티나)에게 리턴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체육기대주 39명 표창

'체조 꿈나무' 이원석(광천초 6년) 등 광주의 체육 기대주 39명이 체육장생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체육회가 17일 광주시체육회 종회의실에서 2010 체육유공자 및 체육장학생에 대한 정부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전수식에서 이원석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고, 태권도의 김영석(천곡중 3년)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았다. 양궁 정유리(두암초 6년) 등 37명은 대한체육회장을 받았다.

김영근 광주군대 5종 연맹회장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종합 1위를 이끌어내는 등 경기력 향상과 지역체



제3 이원석(광천초 6년)이 시체육회 김홍식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고 있다.

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GG경매컨설팅(주)

• 위치: 법원입찰장 건너편  
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 알선

##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 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 앞 유지빌딩 501

###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1,000KW.

#### 차고지 임대구함

면적 2,000m<sup>2</sup>(6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준주거. 자연녹지.

상동동 나대지.m

서구 쌍동동 대주지 112/29 1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평

면적 1,000m<sup>2</sup>(300평) 정도. 상업. 주거3종.

상동동 쌍동동 100/33 95